

# ‘강운태 후폭풍’...역대급 과태료 폭탄 터지나

### 광주 남구 6000명 전전공금...65세이상 유권자의 20% 달해 1인 20만~100만원 규모...선관위 “적극 가담자 우선 부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그 후폭풍으로 역대급 과태료 폭탄이 광주 남구지역에 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전 시장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꾸려진 산악회를 통해 지방으로 야유회를 떠나고 음식 등 물품 제공을 받은 유권자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수만 무려 6000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적극 가담자는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2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8월 초까지 강 전 시장 측이 제공한 야유회에 가

담한 주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261조)은 선거와 관련해 정주 남구지역에 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20대 총선 이전인 지난 2015년 6~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남구 주민 5970명이 강 전 시장과 그의 사조직인 산악회가 마련한 야유회에 동원됐다고 밝혔

다. 강 전 시장 측이 동원한 유권자 규모가 남구의 65세 이상 유권자 5분의 1에 이를

정도여서 강 전 시장 유죄판결 직후 ‘선관위 발’ 과태료 폭탄을 우려하며 전전공금하는 주민들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시장 측이 조직한 산악회는 관광버스 운행비, 식사, 주류, 선물 등 참여 주민들에게 총 1억8000여만 원을 경비로 지출했다. 주민들은 야유회에 참여할 때마다 1만~2만원의 회비를 내는 등 총 1억1000만원을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비를 제외하면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7000여만원을 선거와 관련해 강 전 시장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셈이다.

강 전 시장 측 산악회가 지난 2015년 6월 고충에서 진행한 야유회에 참여한 주민 90여명은 1000원짜리 스카프를 선물로 받고, 식사, 주류, 음료, 관광버스 이용 등 260만 원 상당을 대접받았다. 참여한 주민들이 총 90만원을 회비로 냈다고 해도 1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1인당 2만원가량을 제공받은 셈이어서 선거법대로라면 1인당 부과될 과태료는 20만~10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선거법이 과태료 부과를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도록 규정한 만큼, 남구선관위는 광주시선관위의 의견을 참조해 조만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액수 등을 특정하고 통지할 방침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인 줄 모르고 야유회에 갔더라도 참여자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동원된 인원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이 우선 내릴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시장 징역 1년 선고

“매우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과 기간, 포섭한 유권자 수, 기부금 액수 등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이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를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심형 결정 이유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기부행위·사조직 설립·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산악회 고문 이모씨에 대해 1년, 사무국장 양모씨와 재무국장 구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산악회장 김모씨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0월에 징역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악회 행사는 애초 회비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 자금을 후원하는 고문·자문단을 운영했고, 자문단 회의에 모두 강 전 시장이 참석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운영된 사조직의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봐야 하고, 인연·시집 등을 보면 주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사회통상성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효과적 운영을 위해 남구 16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남녀 책임자와 동 단위 운영위원까지 뒀다. 산악회 운영과 행사를 위한 고문·자문단도 결성했다. 자문단은 매달 10만원을 회비로 냈고,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최고 26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산악회에 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 산악회의 인원과 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23일 오후 목포 신항에서 발대식을 마친 세월호 대학생 도보 순례단원들이 진도 팽목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세월호 진실 규명” 대학생들 목포에서 진도까지 도보 순례

“더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함께 걸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130여명이 폭염 속에서 세월호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416 대학생연대 소속 학생과 유가족 등

으로 구성된 ‘세월호 대학생 도보 순례단’은 지난 23일 인양된 세월호가 거취 될 목포 신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진도 팽목항까지 3박 4일간의 도보순례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미

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 인양, 성역없는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도보 행정은 절망에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에서 참가한 권현진 학생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

다”며 “이번 행진이 진실규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장은아 공동단장은 “지식부진한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해단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가로막히더라도 진실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한빛원전 피뢰침 접지선 도난 수사 박차

### 배관공사 참여업체 추가소환키로

영광 한빛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피뢰침 접지선 일부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민 제보를 접수받아 한빛원전 부지 내 도로를 굴착한 결과 접지선 4m가량을 누군다고 고의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전소에 설치된 피뢰침과 접지선은 낙뢰 등으로부터 발전소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접지선의 경우 전체 길이가 4km 이상이다.

경찰은 주민 제보와 한빛원전 측 설명을 토대로 지난 2010년경 발전소 부지 내 배관설치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

자들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리 로된 접지선 일부를 작업자들이 빼돌렸다고 본 것이다. 국내최고등급의 보안 시설로 분류된 원전은 출입 자체가 엄격히 통제된다는 접지선이 지표면에서 80cm 아래 지점에 매설된 탓에 당시 배관공사에 참여한 작업자 외에는 용의선상에 오를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한 뒤 이들을 철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원전 측은 “경찰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일부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은 확인했으나 단선지선 위치는 도로로서 주요 설비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

## 가출 청소년 유인 성매매·절도 2명 구속

광주북부경찰청은 24일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을 상대로 절도를 일삼은 혐의(특수절도 등)로 폭력조직 조직원 한모(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가출 청소년 A(16)양 등 4명과 공범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2일 A양을 시켜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유인한 성매수남이 사귀는 사이 현금과 옷가지 등 28만원 상당을 훔쳐 나오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절도도 여의치 않으면 16~17세의 가출 청소년 5명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최대로 받은 3000만원을 보초비 명목으로 가로챘다.

이들은 오갈 곳이 없는 A양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경찰은 도주한 공범 2명을 뒤쫓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김용판 재판 허위증언 혐의

### 권은희 의원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은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것”이라며 “제 문제 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 부분파업 노조 대표 고소

###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2016년 임단협 출정식' 참여 등을 명분으로 부분파업을 한 노조 대표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노조가 지난 22일 진행한 4시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주도한 박기주 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노조가 당시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부분 파업을 하면서 완성차 490여대 제조에 차질을 빚어 94억원가량의 손실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쟁의권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사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를 옥죄려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역대 기계 팔겠다”...도난 찢기고 달아난 사기단 탈피

○...공장용 기계 유동장치를 대상으로 역대의 설비를 팔 것이라며 속여 도난 침입받고 달아난 3인조 사기단이 경찰에 탈피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천모(55)씨 등 3명은 지난달 14일 피해자 김모(54)씨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공장용 중고 프레스기계를 매입한다”고 올리자,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기계 사진을 보내고 금방 팔 것처럼 속여

도난 침입받고 종적을 감춘 혐의.

○...일당은 인터넷에서 확보한 기계의 사진, 가짜 사업자등록증,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휴대전화와 팩스로 보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붙잡힌 사기단 2명은 경찰 조사에서 “공장용 기계를 사려는 피해자가 사진과 사업자등록증만 보고서 물품을 받기도 전에 돈을 입금할 줄은 우리도 몰랐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b>[아파트]</b>						
2015타경 19184	1	광산구 양방동대로826번길60-5, 7층 707호	아파트	72,000,000	72,000,000	
	2	동소 60-5, 5층 510호 [월계동, 무들예코플러스]	아파트	70,000,000	70,000,000	
2015타경 23145	1	서구 공충동 613-6 진흥터널파크아파트 104동 1층 102호 120,297㎡	아파트	325,000,000	325,000,000	미남관리비1,717,110원있음(2015.12.31기준)
2015타경 23305	1	북구 신안동 313-1 남양파크맨션 13층 1301호	아파트	153,000,000	153,000,000	2016타경2763[중 5호 84.63㎡]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5타경 23565	1	남구 월산동 326-51 122㎡ [9분의2윤선영지	대	5,592,590	5,592,590	일괄매각, 제시외 우선부
	2	남구 수련지2길 14-1 43.23㎡ [목척1과지분	단독주택	70,000,000	70,000,000	권물모함,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 64481	1	북구 용봉동 9-7 126㎡	대	113,991,910	113,991,910	일괄매각
2015타경 8658	2	나주시 토계동 322-7 106㎡	대	6,890,000	6,890,000	주거나지. 2015타경 130561[병합]
	1	담양군 남면 안월리 495 2678㎡ [405분의31	전	3,238,680	3,238,680	공유자우선매수권립지분전부, 녹지취득자격중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2015타경 22647	2	담양군 남면 안월리 525 79평 [5분의1강주	전	793,440	맹치, 농지취득자 행지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5타경 24018	1	북구 면제동 169 314㎡	전	12,560,000	맹치, 농지취득자
<b>[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b>					
2015타경 22760	3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32-2 926㎡	대	784,609,920	일괄매각, 제시외 수속모함, 목록 16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5-5 지하1층372, 49㎡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1.2층각232.50	위락시설	784,609,920	공실
<b>[기타]</b>					
2015타경 22463	1	동구 학소동 706-34 56㎡	대	130,492,17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모함, 목록 1,3
		동구 학소동 92번길 16 22.81㎡	정포	130,492,170	토지는일단지외외
2015타경 23541	1	동구 학소동 92번길 18 50㎡ 부속건물 광 4주	주택	20,275,200	일괄매각, 맹치, 공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3-202 330㎡ [15	철도용지	20,275,200	일괄매각, 맹치, 공
		본의3기중수지분전부, 매각대상아건물들	이혼채		유자우선매수권행
		동소 1273-71 438㎡ [5분의1기중수지분전부	철도용지		사제한
		.컨데이내매각제외, 인접지이용경계불명, 측량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기대수신인인 매각신청자(기탁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써 매각신청을 철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각대금에 상당한다. 불합합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권자의 민사으로 소유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016. 7. 25.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